

화학공장 안전관리 활동 현황

진순호*

(주)LG화학 여수공장 환경안전부문

(shjin@lgchem.com*)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화학물질과 관련된 누출, 폭발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설비로 구성된 장치산업으로 한번의 사고만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강화된 환경안전보건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 중에 있다. (주)LG화학 여수공장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건강한 사업장 실현’이라는 환경안전보건 Vision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 환경개선, 절대 안전 확보, 선행적 보건 증진’이라는 환경안전보건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Line 환경안전보건 역량강화, 환경안전보건 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 불안전설비 개선을 위한 ESH Audit 강화, 작업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사 안전관리자 양성 추진,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한 비상대응훈련 내실화를 중점 추진하여 환경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주)LG화학 여수공장 환경안전보건관리 현황에 대하여 발표한다.